

# 한번 생각을 해서 체험을 한번씩들 해 보시면서 공부하세요.

## 29면에서 계속

미사일이든 폭탄이든 그게 마음대로 못하죠. 절대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무전도 그렇습니다. 우주간 법계에 그 무전줄이 있어서 '이거는 안 돼!' 하고 차단할 시켜 놓으면 그걸 안 되는 법입니다. 급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것을 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신통이라 하는 건 신통입니다. 신통은 급할 때 쓰는 겁니다. 무전기도 급할 때 쓰는 거고, 미사일이든 것도 급할 때, 한생각이면 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다 탐지기도 할 수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이 오신통으로 들어오고, 눈으로 귀로 상응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이러는 그 자체가 누가 만들었느냐는 애입니다.

그 생각하기 이전 영원한 자기 생명, 그 근원이 바로 그렇게 융합하고 또 돌아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 내주고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원이 아니라면 오신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신통이라는 것은 말로 오신통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체험을 한번씩들 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급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피난처가 따로 있습니까? 내 앞은 자리가 피난처지. 육신이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피하려고 애를 써 봐도 되지 않습니다.

생활면에 있어서 체험을 해 본 분들은 거기에서 또 능력을 얻는 수가 많습니다. 또 남을 위해서도 조그마한 체험이라도 해 보시고 자꾸자꾸 들어간다면 처음에는 조금 조금 먹다가 나중에 큰 바다의 물을 다 삼켰다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삼키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삼켰다 내주고 내줬다 삼키기도 하는, 아주 다양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 그걸 진짜 사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선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날까지 살아가면서 몸에 대해서나 가정에 대해서나 타인으로 인해서나 또는 내가 보거나 들어서 이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했던 분들이 있다면, 또 거기에 의심을 나는 게 있다면 물어 주십시오. 질문해 주십시오.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시대로 봐서도 그렇고요, 이 조그만 조막명 이만 한 나라에 또 세계적인 올림픽도 한다고 그러죠. 가난한 집안에 딸입니다. 손님네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죠. 참, 이것도 한 가정 일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사람이니만큼 남이 잘된다면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모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에서 그렇듯이, 한 사람에게 그렇듯이, 한 나라에 그렇듯이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나를 내세우고 하기 이전에 스스로 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한국에 얼마나 이익이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나가도 그렇고 회사를 운영하셔도 얼마나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걸 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다니기만 한다면 그것은 목적인 겁니다. 목적! 생각을 좀 달리 해 보고 다녀야죠.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고, 또 살면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책보를 끼고선 학교에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하고 강의 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 안 해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꼭 해 봐야죠. 회사에 나가는 사람, 은행에 다니는 사람, 뭐 기자면

다. 마음으로써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익 중생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서부터는 학교에서 공부했으면 집에 가서도 공부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생활면에서 오고 가며, 직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 때 이러한 일이 있을 법도 한데 미리 잘못돼 가지고 그걸 방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해 봐서 '요런 일은 요렇게 되고 저런 일은 저렇게 되고 이렇게 가다가 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 돼!' 하는 것을 못 박아 놓을 수 있는 대로 못 박아 놓고, 천천히 차근차근히 시험을 해 보는 겁니다. 오는 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차근차근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실감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삼각을 통일시킬 수 있었듯이 세계를 통일시킬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왜? 각각 있으면서도 마음이 한마음으로 돌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연결이 된다는 얘기고, 마음과 마음이 그렇게 전달돼서 연결이 된다면 죽이려고 단추를 누르지 않을 겁니다. 칼을 들이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어 죽이려고 하지 않고 불국토를 이룰 수 있게 우리 인간들이 대성황을 이룰 수 있는 지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도 여러분이 소련이나 중공이나 유럽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마음을 던져 놓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던져 놓게 되면은 그것이 다 돌아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 무슨 착잡하거나 또 허황되거나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땀땀한 거예요. 왜 그러냐. 금방 몸은 벗었으나 금방 내가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시려면 오늘서부터는 체험을, 사는 데서 체험을 자꾸 자꾸 하세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말입니다. 대부분 남자분들은 나가서 일하면서 그 일하는 장소에서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활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미리 막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시키려면 미리 막아 두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픈 걸 금방 낫게 해 주지 않는 법도 있습니다. 또 이 몸, 옷을 벗기고 죽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들이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 새 기계를 들여놓고 해 나가기 때문에 내가 들여놓은 기계 가지고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 밀려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렇다고 문을 닫게 되면 벌써 손해야. 그러니 이것을 한생각 내서 다시 설치하게끔 만들거나 기계를 다시 금 똑같은 수 있게 조립을 하거나 한생각 내면 뒷사람들이 다 마음을 내게끔 돼 있다 이거야. 그런 연후에 가서 말만 띄우면 되는 거라.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지. 주인의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라.

이렇게 떠돌아 줘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밥숟가락으로 떠 넣어 드려도 먹을 줄을 모른다면 이걸 어떻게 하냐? 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까마는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서두르는 마음 없이 그냥 그대로 대처해야 될 겁니다.

나는 아주 귀찮을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다니는 회사에 무슨 큰일이 생긴다면 큰일이니까 아예 그냥 다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으니 그대로 해 보시면서 잘 굴러 가면서 체험하면서 자기를 믿을 수 있게끔 만드십시오.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서 모두들 못하시니까 자기를 자기가 진짜로 믿게끔 만드십시오.

여러분 중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 문본은 85년 3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냥 다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으니

그대로 해 보시면서 잘 굴러 가면서 체험하면서

자기를 믿을 수 있게끔 만드십시오.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서 모두들 못하시니까

자기를 자기가 진짜로 믿게끔 만드십시오.

기자, 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지 누구라고 말입니다.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못하면 적힌다 했을 때 열심히 해야 하듯이 모든 게 다 공부란 말입니다. 학교 공부만 공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모두들 수시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하나 자기가 해 나가야지 누가 해 나가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하나 그걸 체크가 되는 거라, 자기가. 감응이 오는 거라. 이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대로 돌아가면은 자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하고 닦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 보지 않는 사람, 그냥 물색없이 왔다 갔다 하고는 해 보지 않는 사람. '내가 힘이 없는데 아이, 내가 뭐 이런 일을...' 그냥 아예 생각조차도 해 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분명코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목적 아닌 목적이죠. 우리 유교의 법만 취하고 사는 사람들, 좀 무의 법을 활용해 보라 이겁니

는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에게도 이익 되지만 남에게도 이익 되고 또 나라에도 이익 되고 모두에게 이익 되지 않습니까. 그 뿐입니까? 체험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라가 위태한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애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두 기록으로만 그저 왔다 갔다 말만 모두 성하고 나 자신은 생각해 보지 못하고 흥되고, 잘못한다 잘한다, 정도다 사도다 하고 비판하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는 영 돌아다볼 사이가 없는 거죠. 이리다 보니까 공부들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백 년 역사에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급할 때나 맛을 조금씩 본 겁니다. 남이 해 줘서,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하고 실질적으로 가르쳐 줘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너 잘났다.' 그리고 해서 몸뚱이들이 저질러진 것이 우리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여기 오는 분들만이라도, 우리는 이 나라를 아주 융성하게 한 자리 올려놓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시어머니는 빨래를 하는 데 아주 욕같이 해 놓는데 며느리가 아무리 따라서 할래도 욕처럼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영 안 가르쳐 주거든요. 죽을 때서야 "꼭꼭" 하고 죽더라고요. 꼭 짜면은...; 허허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나는 그렇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그대로 있건만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 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자기가 믿지를 않아요, 우선적으로. 그러니 어떻게 하냐? 첫째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용을 하지 못하죠? 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로 나오지 않죠? 실감나지 않죠? 그렇게 되니까 절망에 빠지는 수가 많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수도 많고 망하는 수도 많고, 이거는 말도 못하죠. 삶의 보람도 없고 그냥 허황되지만 하죠.

이 도리를 안다면 내일 죽고 지금 금방 죽는대도 하나도 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마음

##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5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도량석, 중송
    - 예경: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상신이운(패불이운), 대령, 관옥, 응호계(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사시, 관음의식, 상응영반, 화엄사시, 구명사시, 통승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오공양, 유원승, 요잡적법
    - 사 물: 태징, 북, 광시,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라. 강 주: 석범은 스님

### 2. 개 강

- 매주 목요일(수시모집)
- 수업시간: 초 급 과 정: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고급과정: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경북 칠곡군 약목면 북성9길 28(북성리 1095) 대한불교영남총회총종 총보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상시모집

8. 문 의 처: 010-3544-2605  
TEL 054)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대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문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주**

4륜구동의 강력한 파워

360° 제자리 회전, 평지 200kg 운반가능

“전통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채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동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문의전화: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김단로 82-6(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 수정기공 및 기공재활사 자격과정 특강

(사람정비 매뉴얼 수정기공)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수정기공 재활사) 민간자격(2014-5765)을 등록하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 아직도 약물이나 침 뜸 지압, 마사지 등으로 질병을 치료를 고집하는가?

수정기공은 1-3차원에 강압에 준하는 단계가 아닌 거의 힘을 주지 않는 4단계를 지나 과거 설화나 천기누설같이 사랑의 극치인 5단계 재활 단계로 영육간 불분했던 모든 장애인에게 건강과 희망과 행복을 재활시키는 꿈의 결정판입니다.

- ◆ 강의 일정: 매월 첫주 일요일 시작, 1개월 4주 단기코스 (일정변경 가능)
- ◆ 강의 내용: 기공을 이용한 사람정비 매뉴얼
- ◆ 접수 인원: 선착순 8명 이내.
- ◆ 수강 대상자: 의료인, 물리치료사, 건강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남녀.

- 1 강 사: 김문기 원장(박사 / 한국 신지식인)
- 2 교 재: 환상의 통증치유 STT의 4단계와 5단계 기공법 전수
- 3 강의 장소: 수원 성균관대학 전철역 앞
- 4 접수 및 상담: 010-3463-7806
- 5 수강료: 수정기공 수료 및 자격증 취득과정 전화 상담
- 6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